

# 시공이 없이 빠른이 진리 속에서 한 차원 넘어서야!

## 21면에서 계속

많은 혹성 중에, 그 많은 별성 중에, 그 많은 태양계 중에, 우리 인간이 마음 자체를 발견한다면 대 우주 대전세계의 섭리를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음 속에, 티끌 속에 있듯이, 마음으로서, '만법' 하면 대전세계 중천세계 소천세계까지 다 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모르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또 알고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소릴 하는 것은 왜냐하면 여러분이 좌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차원이 낮아서 눈도 멀고 귀도 퍼지 못했다면 모습을 바꿔서 짐승 속에 들어가서 짐승 모습을 타고날 수도 있으니 하천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그 모습을 타고 났으니 그 모습의 노릇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엇그저께도 얘기했지만 여자는 여자기 때문에 여자의 행동을 하고, 남자는 남자기 때문에 남자

것은 묘법의 불가사의한, 신비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혹성에서 마음세계로 치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지구의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발전하고 이러한 것을 지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하고 방문을 해서 모두 돌아보고 가도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개발되지 못하면 아마 다 송두리째 뺏겨도 뺏기는 줄 모르게 뺏길 수도 있다 이 소립니다. 뺏긴다고 해서 죽는 것은 아닙니다만 두뇌가 무질서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알고 있고 듣고 보고 있는 그 자체를 그냥 빼 가도 여러분은 어디다가 호소 한마디 못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술을 가졌든지 다 빼서 자기들은 마음으로 한생각에 해결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몇십 년을 연구해서 비행기를 하나 만드는데 이젠 물질과학이지만, 그들은 심성과학이기 때문에 한생각에 비행기를 만들

었다 한다던 '서천국에 아촉불국이 있노라', 또는 '도리천국에 아촉불국이 있으니' 하는 것은 나의 마음을 깨쳐서 내가 미지의 세계 서천국으로 든다는 얘지요. 그러나 지금 현실의 유(有)의 세계에 회전을 하면서도 내 마음을 밝혔으면 불은 항상 켜져 있으니 아촉불이 아니겠는가? 도리천국에 아촉불국이 있다는 건 부처님 자리를 말할 수 있겠지요. 모두 나와 나와 돌이 아니게끔 뽀뽀만 아니라 풀 한 포기 버리지 않는, 그 생명과 마음이 같이 하나 바로 도리천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지요. 도리천국에 아촉불국이 한자리를 하고 있다! 내가 경전에 있는, 부처님이 전자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름을 그대로 따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이해를 해서 들으시라라고 믿고 이런 말을 합니다.

실체가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동물들도, 우리 인간의 마음보다도 더 높은 차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오진 못했어도 여러분을 하나하나 집어 삼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자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한테 해로운 일이 너무도 많이 앞으로 닥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동네만 동네가 아닙니다. 지금 지구로 봐도 작지만, 우리나라로 봐도 푹 손가락 반쪽만한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 마음들이 공부해서 잘 된다면 땅을 더 차지할 수도 있고 또 우리들이 세계적으로도 융성하게 되고 참, 조그마한 나라이지만 보고 배울 게 있다는 소리를 듣고, 또 조그마한 나라지만 사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죠.

앞으로 사람이 그렇지 못할 때, 예를 들어서 산과 들로 배를 타고 다니야 하고, 물속으로 수레마차를 타고 다니야 할 지경에 도달할지도 모르죠. 그렇게 된다면 또 한 축, 우리는 지금 이 땅속에서 파먹을 걸 다 파 먹고, 룯값까지처럼 쌓아 놓은 거를 다 빼 먹고 나면 먹고 살 게 없을 때... 하기가 뒤집어서 불속이 만약에 산이 되고 돌이 된다면 또 파 먹을 게 있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옛날 얘기처럼 듣지 말고 "과거에는 이렇게 지나갔으니까 그만이지, 꿈과 같아." 이리저 마십시오. 과거도 오늘이고 미래도 오늘인 것입니다. 오늘에 우리가 해놓은 것이 영원한 오늘에 다가온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시렵니까? 여러분은 몸이나 벗으면, 늙어서 몸 벗으면 그만이지 하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는 그 모습을 바꿔서 또 나오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살아야 하는 거요. 그러니 늙었다 젊었다 하는 것은, 사람이 늙는 것은 익어가는 걸 말합니다. 사람이 늙어가면서, 젊어서부터 늙어질 때까지 그 경험과 체험과, 그 사람이 삶의 모든 것을 익히고 늙어질 때, 그것은 바로 벼 이삭이 다 익어서 고개가 숙여지듯이 다 익은 걸 말합니다.

다. 살면서 어떠한 게 불편했고, 어떠한 게 좋고 싫고 이런 생각으로 살다보면 자기가 모습을 바꿔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대로 꼭 가지고 나옵니다. 짐승들도, 자기가 어떤 게 부족하면 꼭 다리를 길게 하든지 짧게 하든지 꼭 그렇게 해가지고 나오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뭐가 중요하냐 하면, 지금 얘길 저쪽으로 하다 이쪽으로 왔는데 요거 한마디만 하고요. 사람이 짧게 하고 길게 하고 간에 사람의 씨는 사람을 낳는다. 그런데 그 사람의 씨로 사람을 낳는 것이 얼마 동안 가다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올 수가 없는 때가 있어. 또 새가 알을 낳다가 말입니다. 새가 알을 낳고 알이 새가 되고 이렇게 쳄바퀴 돌듯 하다가 천년 만에 그 새의 모습을 바꾼다. 오백년 만에 바꿀 수 있고 삼년 만에 바꿀 수 있다. 이것은 자기 차원대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눈이 뜨이고 귀가 뜨이고, 아까 얘기하듯 다섯 가지의 그 눈을 다 떼서

죠.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있다가도 사람들이 왓자지껄하게나 그러면 그냥 없어져, 지금 비행기 뜨는 것처럼 꼭 가서 이렇게 뜨는 것도 아니야. 또 불이 락락 나면서 뜨는 것도 아니야. 이것은 그냥 환하게 눈이 부셔서 그냥 그쪽을 볼 수 없게 하고 없어지는 그런 자체, 그건 어디서 났을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어디서 났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과학자들은 그런 거 한 예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서든지 지금 모습 없는 모습들이 살고 있고 생명이 있다는 거를 증명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걸 헛되게 생각할까봐 그런 얘기를 중간에 넣는 겁니다, 사실대로요. 제가 똑똑히 보지 않은 것 같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스물세 살 때엔, 참 짐을 못 잡고 꿈꿈히 생각했던 겁니다.

한 손이 말입니다. 손가락이 다섯 개 있다고만 하면 우리 손 이천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손 아

**그 많은 혹성 중에, 별성 중에, 태양계 중에  
우리 인간이 이 마음 자체를 발견한다면  
대우주 대전세계의 섭리를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 행동을 하듯이 돼지로 태어났다면 돼지의 행을 해야 하겠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좌전보다는 승전이 된다면 마음의 세계로 우리는 등장할 수 있는 거요.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있는 것은, 마음의 세계에 서 그 모두를 보고 듣고, 속명을 알고, 타심을 알고, 천안을 알고, 천이를 알고, 신족을 알고 밤바퀴를 굴러서 이 세상에 공덕이 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보낸 불수록 광명이 비치고 전력 에너지가 다 그 사람의 능력을 또 이끌어주고 할 수 있는 거요, 모든 것을, 만약에 그런 능력이 없이 말로만 학습적으로만 똑같은 말을 되풀이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닙니다. 말을 하더라도 주인공 자체로서 돌이 아리게끔 해야죠. 그래야만 말을 해도 한 사이 없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앉아 계셔도 한 사이가 없다 하는 것은 주인공 자체가 다 똑같이 때문입니다. 주인공이 다 똑같아서 한데 합쳐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해도 두드러지게 '내가 말을 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왜? 여러분하고 다 같은 한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어서 타고 다니다가도 그냥 없애버릴 수가 있죠. 우리가 말을 하다가도 말을 중지하면 말이 끊어지고 없어지듯이, 타고 다니다가도 그냥 내리면 없어져. 그것뿐입니까? 자기가 만 가지 모습으로 낼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한 가지의 실상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실체를 가지고 살지 않기 때문에 실상이 없고, 실상이 없기 때문에 무반전지감이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뭐가 있느냐? 해롭게 하려면 한없이 해롭게 하고 이익하게 하려면 한없이 이익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무서운 도리다 이런 소립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부처님 자리나, 그게 아닙니다. 깨쳐서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것은 모습으로 탄생하게끔 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뜨겁고 좋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지구처럼 사계절이 온기와 공기 등 모든 게 구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실체가 나오지 못했을 뿐이지 그대로 자기다 이거요. 그것은 공기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야. 뜨거워도 뜨거운 게 없고, 차도 찬 게 없고, 공기가 있으니까나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서천국에, 사천세계에 서천국이

**다섯 가지의 마음의 눈을 다 떼서  
수레바퀴 굴러듯 다 굴릴 수 있다면  
마음으로부터 골수로 인해서 굴리기 때문에  
그것이 길이요 道요 바로 자유인!**

수레바퀴 굴러듯 다 굴릴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마음으로부터 골수로 인해서 그것을 굴리기 때문에 그것이 길이요 도요 그것이 바로 자유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선조들의 흉내는 내지 못합니다. 흉내를 내봤자 그렇고, 나는 그것이 내 성격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대박이었고, 나는 또 지금 현대대로의 방편을 그냥 쓰는 것 뿐입니다. 그거를 흉내를 내서 해야만 조사 의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 되면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정을 해주면 어떻고,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난 그런 거를 바라고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또 눈이 있고 귀가 뜨이고, 그 다섯 가지의 굴림이 갖추어지면 본분은 다 아시겠지요, 그렇게 안 해도.

그런데 아까 얘기하다가 마치지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모습 없는 모습들이 항간에 모습을 해가지고도 나타낸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때 저는 똑똑히 내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비행접시도 봤습니다. 그건 어디서 온 걸까요. 우리 지구 안에서 생기지 않은 건데 어디서 났을까요? 둥글둥글하고 또 이것이 고슴도치처럼 생긴 것도 나타났

닌 손은 이 손가락 하나를 딱 올리면 저 다른 혹성에게까지 그 손가락이 가! 가신 이렇게 올라 올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자리라면 그렇게 해서 올라와도, 죽어도 살리는 것이고 살리는 것도 죽이는 거지만 아! 이놈의 물체들은, 물체 없는 물체들은 말입니다, 그렇질 않아요.

빼 먹어요. 힘을 빼 먹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지구 안에서 힘을 다 빼 먹고, 꺼내 먹을 거 다 꺼내 먹고, 다 꺼내서 뭘 거 때고 그런 다른 자력과 광력은 어디서 다 나와 또는 우리가 인구는 점점 늘어가는데 어디서 나서 다 먹고 살렵니까, 하는 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도리, 부처님 도리의 공부란 안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다음 호에 이어서)

※ 위 법문은 1987년 8월 16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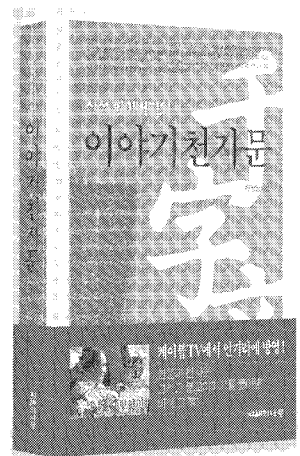
## 케이블 TV

# “산성 할아버지의 신사고 한문이야기”로 방영된 강의를 엮어낸 화제의 책!!

천자문을 기존의 해설이나 풀이 방법이 아닌, 본연의 나를 찾는 깨달음의 경문으로 풀어 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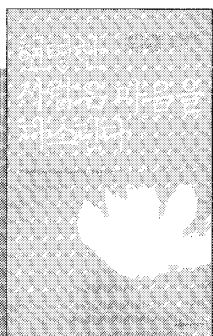
한자의 구성과 그 본연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이야기와 예문,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 등을 인용해 알기쉽게 엮어낸 이야기 천자문!!

천원일 자음 | 536쪽 | 값18,000원 | 고급양장 값2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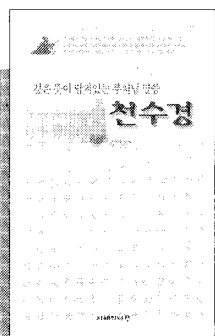


## 산성 할아버지의

# 이야기천자문



**붓다의 마음 다스리기**  
현명한 사람은 마음을 다스린다  
두려움과 근심없는 생활을 위한 마음 다스리기!  
당신은 두려움과 근심걱정이 없으십니까?  
천지들의 천안과 일화를 통한 붓다의 마음다스리기  
달마님다 자음 | 홍종욱 옮김 | 값8,000원



**깊은 뜻이 담겨있는 부처님 말씀**  
찬수정  
원문 찬수정을 해설한 책!  
절 삼배, 원이삼점, 사십이수전, 유불문 등  
원문을 부처님의 지전에 맞추어 깊이있게 설명한다.  
천원일 판자 | 값10,000원